

2021

고3 4모

2021년 시행 고3 4월 학평 국어 문학 동맥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일당을 제하고 말겠다며(반장의 강압적인 태도) 반장을 제쳐 놓고 관리과 직원들이 작업 감독을 했다.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일손들을 재게 놀리면서도(관리과 직원들의 작업 감독을 받으면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 가슴마다에는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인물의 심리 상태를 비유적으로 드러냄)(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들 셋(힘들게 일한 노동자)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리를 내뻗고 등을 벽에 기대 몸을 부린 채 말이 없었다. 피곤에 지쳐 풀려 버린 눈에는 물기에 젖은 절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인물이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나타냄)

분옥이는 가슴을 와득와득 쥐어뜯고 싶었다.(인물의 심리 상태를 제시함,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확인할 수 있음)(시점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오만 오천 원.(힘들게 모은 돈) 삼 년에 걸쳐 모은 그 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떼어먹혀? 그게,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차라리 식칼을 들고 엎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 만 오천 원만 더 모으면 그 가슴 조이던 꿈(미용사가 되려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칠만 원으로 육 개월간 미용 학원엘 다닌다. 그리고 어엿한 미용사가 된다. '시다'가 아닌 흰 가운을 입고 빨간 매니큐어 칠한 미용사가 된다. 가지가지 모양의 머리를 만들어 내는 기술자가 되고 단골을 잡고 고정적인 월급에 후한 팁을 받아 차곡차곡 모아 독립을 한다. 그때는 미장원 주인, 아니 미장원 마담.](분옥이의 꿈을 구체적으로 나타냄)(내용 일치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분옥이는 그만 가슴이 펄떡이고 전신이 짜릿짜릿해지는 것이다. 정신은 아물아물해지며 몸이 붕붕 뜨는 것이 타 보지 못한 비행기 타는 맛이 이러랴 싶었다. 그런데 그 돈을…….(생략법을 통해 분옥이의 절망적인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봉자의 마음은 이 년 전 새벽에 집을 도망쳐 나오던 꼭 그런 허망한 기분이었다.(인물의 심리 상태를 직접 제시함) 순심이의 편지만 믿고 서울 돈벌이를 작정한 나머지 겨울 새벽길을 더듬어 걸으며 왜 마음은 그리도 텅 빈 들녘처럼 허망했을까. 생전 처음 부모 곁을 떠나 말만 들은 서울로 가기 때문이거니 했지만 기차를 타고서도 그 허망한 기분은 가시어지질 않았다. 그때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현재의 절망적 상황으로 인해서 과거 고향을 떠난 서울로 올라온 것에 대한 후회함)(인물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 일치 유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허망했던 기분은 서울역에 내려서 두 눈을 뒤집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순심이를 원망하면서 절망(봉자의 현재 심리 상태)으로 변했다. 그 절망은 견딜 수 없는 향수였다. 그러나 그 짙은 향수는 돈벌이를 강요했다. 돈을 벌지 않고서는 얼굴을 들고 돌아갈 수 없는 집이었다. 집을 뛰쳐나온 변명의 구실이 없었다. 그동안 삼만 원을 모았다. 그걸 남들처럼 회사에 넣어 이자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렇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절망적인 상황) 8월 초순, 여름인데도 마음은 꼭 겨울 새벽의 텅 빈 들녘처럼 허허할 뿐인 것이다. 누구누구처럼 별 계획도 없었다. 오만 원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리라 했다.(오만 원만 모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봉자)(인물이 처한 상황에 관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길순이는 자꾸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그들 셋 중에서 마지막) 홀로인 어머니 얼굴이 어너거렸다. 열일곱에 떠난 고향. 스물한 살이니까 어느덧 사 년째가 되었다.(길순이의 상황) 봉자나 분옥이보다 오래되었으면서도 그네들과 같이 지옥탕(염색한 천을 행귀 내는 첫 번째 탕을 그렇게들 불렀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다 돈 때문이었다. 세월을 따라, 회사 규정대로 했다면 지금쯤은 신선놀이(건조된 직물을 손질하는 부서)를 하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진종일 지옥탕에 무릎까지 담그고

서서 염색 물감의 독에 살갓이 썩거나 습진으로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도(열악한 노동 상황을 알 수 있음) 우선 돈이 필요했다. 신선놀이를 하는 축들이나 분옥이, 봉자보다 삼분의 일이 더 많은 수입을 떼쳐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분옥이나 봉자보다도 장딴지 살갓이 험하게 부르트고 습진도 고질이 되어 버린 것은 어찌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니 지옥탕에서 건디는 것도 금년뿐, 내년부터는 별수 없이 신선놀이를 하게 되어 있었다. 금년 초에 벌써 회사 측에서는 신선놀이를 명령했었다. 인건비 낭비를 막기 위함이 었을 것이다.(길순이에게 다른 일을 지시하는 이유) 관리계장에게 사정사정해서 금년까지만이라는 허락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늙고 두 동생은 어리고…….(돈이 많이 필요한 이유) 한 달에 만 사천 원 월급에서 자취비, 사글셋방 값, 이십사 개월 오만 원짜리 껌돈 등을 제하고 나면 회사에 맡긴 칠만 원에서 나오는 삼 부 오 리의 이자를 합해도 집에 사천 원을 송금하기에는 숨이 가빴다.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묶이고……. 길순이는 또 목젓이 아프도록 침을 삼켰다. 곧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은 것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어머니와 두 동생은……. 자꾸 눈시울이 매워져서 한사코 눈길을 천장으로 올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여공들(앞에서 서술한 세 사람)은 자신들이 회사에 맡긴 돈과 관련된 사채 동결에 대한 정부 정책 기사를 보게 된다. 이 기사를 읽은 후 경리과로 가서 경리과장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회사에 맡긴 액수는 적고 사람 수는 백칠십여 명에 달하여, 개인당 서류를 꾸며 사장님께 결재를 맡게 되면 일이 번거롭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줄 수가 없게 됐어요.](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설명) 그래서, 항시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하루속히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신(실제로는 노동자들 편에 있지 않으므로 해당 표현을 독자는 반어적으로 이해하고 총무부장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이 일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시던 중 묘안을 내셨습니다. 그 묘안이란 뭐냐. 다름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돈을 총무부장님 한 분 이름으로 결재를 맡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리과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카드를 비치하고 매달 원금에 맞는 이자를 분배해 왔습니다. 에에,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여러분이 맡긴 일인당 원금을 평균 오만 원으로 잡고 백칠십 명이면 오 칠에 삼십에 오오, 오 일은 오니까 도합 팔백오십여만 원이 됐지요. 그 돈의 명목이 법적으로 총무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오백만 원 이상이면 삼년 거치 오 년 상황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법은 엄중하고 인정이 없는지라 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삼 년을 기다리며 사채 법정 이자를 받고 사 년째 되는 해부터 원금을 찾게 됩니다.(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나 개인으로서는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하나(진심이 아님)인물의 가식적인 말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법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는 바이올씁니다.(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태도)”

경리과장의 그런 유식한 연설을 듣고 나서도 여공들은 아무 동요가 없었다. 처음 사채 동결의 소식을 들은 때와 마찬가지로였다. 결국 작업 총반장 허씨의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에 와르르와르르 무너지는 가슴을 힘겹게 붙안아야 했다.

다음날부터 공장 안에서 우중충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노동자들의 절망적인 심리 상태를 비유적으로 드러냄) 어느 때 없이 염색 물감 냄새가 역하게 속을 뒤집었다.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던 유행가 대신 긴 한숨이 꼬리를 물었다. 물속에 담긴 종아리가 못 견디게 아리고 발가락 사이가 미치게 가려워 오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말이 퍼졌다. 그전에 사장이 내놓은 이자는 사 부 오 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이 짜고 오 리씩 해 먹었다는 소식이였다. 이런 사실을 사장은 뒤늦게 알았지만 다행히 모든 돈이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자 두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이다.](사장, 총무부장, 경리과장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이기적인 인물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활용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조정래, '동맥'

■ 핵심 정리

- 갈래 : 현대소설
- 성격 : 사실적, 비판적
- 주제 : 산업화 시대에 따른 사회의 모순, 부패에 대한 비판
-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특징
 - ①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 인물의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② 이기적인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 당시 시대 상황과 함께 비판적 시각으로 그려냄.
 - ③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분위기를 비유적으로 드러냄.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1970년대에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꿈의 실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 식구들에 대한 부양 등의 이유로 돈을 벌려고 노력하며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영향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가운데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세력에 의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진다.

■ '동맥'의 의미

- ① 사전적 의미: 심장에서 나오는 피를 몸 안의 모든 기관으로 보내는 맥관 계통.
 - ② 문맥적 의미: 동맥이 심장으로부터 피를 공급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산업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부를 가져다 준다. 그런 반면에 동맥은 그것을 끊음으로써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것은 산업화와 자본주의로 인해 없는 자들이 더욱 가난해져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된다.(생명의 상실)
- ⇒ 결국 동맥은 산업화로 인해 생기는 양면성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주인공의 삶을 통해 어두운 측면을 강조했다.

서지정보
 저자 이재균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0705-4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1.04.21
 가격 500원

